

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에 대하여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정보화실 연구원, 국어사 전공
leehj@aks.ac.kr

I. 머리말

II. 중복형식의 표기

III. 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의 출현 양상

IV. 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의 성격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문서 생활 중 우리 선조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향유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간찰일 것이다. 간찰에는 한문 간찰과 한글 간찰이 있다. 한문 간찰이 주로 사대부가 남성들에 의해 향유되었다면, 한글 간찰은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노비 계급까지 폭넓은 계층에서 향유되었다. 한글 간찰의 향유에는 성별에도 제한이 없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글 간찰은 특별히 ‘언간(諺簡)’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한글이 ‘문자(文字)’, ‘진서(眞書)’ 등으로 불린 한문과 대비하여 ‘언문(諺文)’이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이 언간은 일상의 사적인 발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술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자연스러운 국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언간 연구의 첫 진입인 판독 자체가 쉽지 않아 최근에 들어서야 국어사 연구에 비교적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하였다.¹⁾

여타의 판본자료와 비교했을 때 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빈번한 중복형식의 출현이다. 물론 중복형식이 언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여타의 판본자료와 비교했을 때, 언간자료에 유독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언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언간의 중복형식은 주로 ‘재점(再點)’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일일이 재점이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한다. 물론 이 재점 역시 언간뿐만 아니라 한글 소설 등의 필사자료에도 나타난다. 그런데 유독 언간에

1) 언간은 개인마다 필체가 다양하고 글씨를 흘려 쓴 정도가 심하여 판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자들이 쉽게 연구자료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부터 국어학자가 주도하는 역주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조항범(1998), 백두현(2003) 등의 결과물이 출간되어 언간자료가 국어학계의 조명을 받게 되었고, 언간이 국어사 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황문환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언간 역주사업의 결과물을 출판하기 시작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10』, 태학사, 2005·2009). 이러한 대규모 역주사업의 결실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판독문을 활용할 수 있는 언간자료의 수가 400건을 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무려 2,700여 건을 넘는 결과물이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언간을 이용한 대부분의 국어사 논문들은 이 업적을 이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 또한 이 업적을 이용한 결과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재점이 많이 쓰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재점의 사용이 중복형식의 출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간에 유독 중복형식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를 밝힐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인간에 등장하는 중복형식이 인간의 구어적 성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밝혀질 것이다. 결국 인간에 등장하는 중복형식이 그 당시의 언어질서를 충실히 반영한 언어형식인가 아니면 인간이라는 매체적 한계에 지배받은 매체 언어적 성격을 지니는 언어형식인가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²⁾

II. 중복형식의 표기

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은 흔히 ‘재점’이라고 불리는 반복부호로 표기된다.³⁾ 물론 재점은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중복형식을

2) 이 글에서 일차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은 한글 간찰은 총 255편으로 모두 근대국어론 반영하는 자료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비교적 정확한 판독 작업이 이루어졌고, 몇 차례에 걸친 검증 작업이 수행되어 대상 자료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김일근(1986)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인간 중 17세기에 해당하는 164편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17세기는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근대국어 초기에 해당한다. 또한 장원 황씨 한글 간찰 69편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은 18세기 이후 19세기 자료들이다. 그리고 순흥 안씨 한글 간찰 22편은 19세기 중·후반 또는 20세기 초까지의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각각 두 가문의 친·인척 간에 주고받은 간찰들로서 후기 근대국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2장 ‘중복형식의 표기’에서는 재점의 용법을 기술하는 데 16세기 자료인 <순천 김씨묘 출토 인간>의 188건도 검토자료로 포함시켰다. 이 자료는 비교적 여러 학자에 의해 판독이 이루어져서 그 정확성을 믿을 만하고 원본도 공개되어 재점의 표기 형태를 원본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반복 부호는 크게 부(符)로 보는 견해와 점(點)으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지금까지 반복 부호에 대한 언급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符)

가-1. 한글학회(1952: 65): 자거듭표(疊字符)

(27) ㄱ(가로겹자점) ㄱ(내리겹자점): 한자의 필기에 한하여 한 글자를 거듭 쓸 때, 거듭 쓰는 대신에 편의상 쓸 수 있다(65쪽).

(28) 말거듭표(疊語符) ~ (개미허리): 필기에 한하여 두 자 이상으로 된 말을 거듭 쓸 때, 두 글자 이상의 길이로써 그 말을 거듭 쓰는 대신에 편의상 쓸 수 있다(66쪽).

(29) 가지런표(同上符) 〃 (꼬불쌍점): 윗줄이 같은 위치에 있는 글자나 말을 가지런히 따라 쓰게 될 때, 그 글자나 말 대신에 편의상 쓸 수 있다(66쪽).

표기하기 위해서만 등장하는 부호는 아니다. 재점은 선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반복하기 위한 반복부호로 사용된다. 다음의 예문 (1)을 보면 바로 위의 형식이 무엇이든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재점이 사용되었다.

(1) 바로 위 한 글자의 반복에 쓰인 예

- a. (중첩형 부사) 내〃, 점〃, 던〃, 스〃, 각〃 <순천>
- b. (중첩형 어근) 심〃 하니, 답〃 흥, 요〃 하니 <순천>
- c. (어간-어미 경계에서의 중첩) 아니〃, 든니〃, 부니〃, 브리〃라
- d. (단어 경계에서의 중첩)

아므려나 내바다 빈 갑고 하 **비디** 〃**거든** 앓가온 것 더러 두어라 <순천 10>

나는 도히 잇□ 어려워 므스딕 **넙니만** 〃**히여라** <순천 16>

방 닫고 드러 이제우터 이시니 겨울 **엇디** 〃**내려노** <순천 37>

(35) 도수표(度數符) °(깨어고리점) ’(빗점), 〃(쌍빗점): 도수(度數)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때 °을 도(度), °은 분(分), 〃은 초(秒)의 뜻으로 각각 숫자의 오른쪽 어깨에 찍는다. [...] 〃은 내리글씨에서 ”(가지런표)의 대신으로 쓰기도 한다 (66-67쪽).

가-2. 柳鐸—(1989: 103) ‘同一符號’: “우리 고문헌에 나타나는 同一符號는 〃〃형 〃〃형 등이 있다. 寫本에서는 흔히 찾을 수 있고, 印刷本에서는 國文本 坊刻 小說에 많이 나타난다.

가-3. 李福揆(1996: 464-465) ‘자거듭표(疊字符)’: “(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따르면 漢字의 필기에 한하여 한 글자를 거듭 쓸 때, 거듭 쓰는 대신에 편의상 쓸 수 있는 문장 부호”, “하지만 근대 이전의 자료를 보면 한문은 물론 국문의 경우에도 자거듭표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두 글자 이상의 어구가 거듭될 때에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4. 이종덕(2010: 160-161) ‘거듭표(反復符)’: “이 글에서는 어문 규정의 문장부호 명칭과 통일을 위하여 거듭표(反復符)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글편지에서 거듭표의 모양은 모점 2개를 모아 찍은 모양, 이 두 점을 이어 찍은 모양, 모점 하나만 찍거나 약간 길게 찍은 모양 등으로 나타난다. 이 부호는 대체로 같은 글자를 반복하는 경우를 나타내지만, 단어 또는 형태부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가-5. 이진식(2011: 12) ‘중복 부호’: “1자를 중복할 경우 중국과 한국의 중복 부호 사용법은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 [...] 중복 부호(々)를 사용하여 ‘悲痛心悲痛心’을 표기하는 방식에서 한국과 중국은 차이를 보인다. 즉, 한국은 ‘悲痛心 々 々’으로 표기하고 중국은 ‘悲 々 痛 々 心 々’으로 표기한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나. 점(點)

나-1. 김일근·황문환(1998: 65) ‘再點’: “편지 원문에서 동자 반복을 대신한 표시”

나-2. 황문환(2002a: 268) ‘再點’: “편지 원문에서 同字나 同句 反復을 대신한 표시”

나-3. 황문환(2002b: 143-144) ‘再點’: “본래 재점은 (a)=[답〃]와 같은 글자가 반복될 때 운필(運筆)의 노력을 덜기 위하여 뒷글자를 대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 글자가 아니라 (b)=[구디〃, 깃게라〃, 보고자〃]와 같이 단어(구디)나 어절(깃게라, ‘보고자’ 전체를 반복하는 데도 재점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러한 재점은 대부분 주관적 심정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인간에 특유한 일종의 강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예문 (1)을 보면 화자의 형태소 분석과 같은 언어 의식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선행하는 동일 글자의 반복을 나타내기 위하여 재점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언어적으로 의미 있는 형식이 재점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예문 (2)와 같다.

(2) 바로 위 언어형식의 반복에 쓰인 예

a. 바로 위 언어형식의 각 글자 반복에 쓰인 예

(바로 위 언어형식 2자의 반복)

대강 " " 만 흐노라 <순천 16>

그 신주 독곳 아니 와서면 뿔가 **브뒤 " "** 흐 거슬 엇딜고 간나히 나가
수이 츠려 오고져 흐뇌 <순천 50>

(바로 위 언어형식 3자의 반복)

모락미 " " " 날 어엿비 녀겨 내 말 듣소 <순천 160>

b. 바로 위 언어형식 전체의 반복에 쓰인 예

(바로 위 언어형식 2자 반복)

더욱 ", ㄹ장 ", 즈시 ", 엇디 ", 쉬이 ", 도히 " 잇거라, 설위 ", 지극 "
깃브거니와, 가지 ", 두곤 " 보니, 민망 " 흐니, 그지 " 엇다 <순천>

(바로 위 언어형식 3자 이상의 반복)

(3자 반복) 너히나 가 **보고자 " "** 바라느니 그붓니로다 <순천 12>

운쉬 그러니 즈시기라 **흔하랴 " "** <순천 30>

아들 다 나흐니 지극 **깃게라 " "** <순천 61>

나도 하 고료와 죽시도 가고져코 병나디 마니 **가고져 " "** 호뒤 온 거시라
<순천 71>

(4자 반복) 날을 마리 무진흐니 엇디 다 스리 이만 보고 내 뜰들 **알 거시라
" "** <순천 55>

벼스리 내게 큰 **해로더라 " "** <순천 79>

(5자 반복) 아가내도 못 미쳐 **브리러니라 " "** <순천 169>

예문 (2)a를 보면 앞서 살펴본 예문 (1)과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형식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재점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예문 (2)b에서는 언어적으로 의미 있는 단위인 어간이나 어근 또는 어절 전체를 하나의 재점으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2)a형과 (2)b형의 기능상의 차이점은 없는 것 같다. 단지 그 나타나는 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언간에서는 (2)a형이 나타나지만, 17세기 이후의 언간에서는

대부분의 중복형식이 (2)b형으로 나타난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세기 인간인 송강자당언간(松江慈堂諺簡, 1571)에 “분별〃〃 ㅎ 읍노이다”가 나타나고 송강언간(松江諺簡, 1570)에 “썰리〃〃”가 나타난다.

모든 중복형식이 재점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중복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재점이 아닌 원래 형식을 그대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 (3) 네미 상스는 **통곡통곡밧씩** 〈윤선도언간(尹善道諺簡) 123〉
 어려서부터 **동갑동갑 ㅎ 읍고** 〈명성왕후언간(明聖王后諺簡) 129〉

Ⅲ. 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의 출현 양상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언간자료에서 중복형식은 다양한 통사 단위에서 나타난다. 부사 어간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명사 어간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굴절형이나 문장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ㅎ-’에 선행하는 어기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ㅎ-’와 그에 뒤따르는 어미가 생략된 어기 활용형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 (4)
- 가. 부사 어간의 중복
더욱더욱 처창 ㅎ 여 ㅎ 닌 〈송강언간(松江諺簡) 3〉
 - 나. 명사 어간의 중복
 알외을 **말슴말슴** 하감하감 ㅎ 읍 심 〈창원 27〉
 어려서부터 **동갑동갑** ㅎ 읍고 각별이 ㅎ 읍다가 〈명성왕후언간 1〉
 - 다. 굴절형의 중복
그런그런 깃브은 〈명성왕후언간 3〉
 - 라. 문장의 중복
망극통곡이라 망극통곡이라 〈창원 54〉
 - 마. ‘-ㅎ-’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
 치위에 노인네 처관으로 든니시는 일 **민망민망홀** 일 일로논다 〈창원 23〉
 - 바. 어기 활용형의 중복
 완이 형데 **무탈무탈** 축실 ㅎ 오니잇가 〈창원 63〉

※ 원문에 나타나는 재점을 필자가 그것에 대응하는 형식을 재구하여 표기함.
 아래의 예문들도 동일함.

물론 위의 중복형식은 인간자료에서만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자료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유독 인간자료에서 이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복형식의 대부분은 언어수행 면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수의적인 언어현상이다.⁴⁾ 중복형식의 대부분은 ‘표현의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의적인 표면구조 현상이다. 인간자료는 개념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언해서 중심의 판본자료와 달리 비교적 실제적인 장면에서의 언어수행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어적 성격 때문에 여타의 판본자료와 달리 중복형식이 광범위하게 출현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이 단지 인간의 구어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에 수록된 언어는 구어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구어일 수는 없고 ‘인간’이라는 의사전달 매체에 의해 표현된 구어적 성격의 문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에 수록된 언어는 인간이

4) 그러나 인간에 나타나는 모든 중복형식이 “표현의 강화”를 위해 쓰인 것은 아니다.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단어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품사의 변화를 조래하는 단어형성 규칙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문과 같이 명사 어간이 중복되어 부사 어간을 형성한 경우도 있다.

네 일을 심각하니 **가지가지** 굿비 디내엿넉넉 (莊烈王后諺簡 1)

식식 텨장호오매 (宋時烈諺簡 1)

제제도 산 거슬 다 쏘니 사다가 **지이지이** 머기늬이다 (鄭澈慈堂安氏諺簡 2)

닌상이는 너를 하 좃고 섭섭하여 **때때** 우니 (仁宣王后諺簡 60)

위의 예문에서는 명사 어간 ‘가지, 스이, 지이, 때’가 중복됨으로써 부사 어간을 형성하였다. 이 방법은 현대국어에서도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부사형성 방식이다. ‘가지가지’는 분류사 ‘가지’가 중복형에 의해서 부사 어간이 된 경우로, 현대국어의 ‘가다가닥’, ‘마디마디’, ‘덩이덩이’와 같은 단어형성 방식이다. ‘식식’은 ‘스이스이’가 축약된 형식으로 공간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어간의 중복형식이 부사 어간을 형성하는 방식이며, 현대국어의 ‘고을고을’, ‘거리거리’, ‘구석구석’과 같은 유형의 단어형성 방식이다. ‘지이지이’는 문맥 의미로 보았을 때 동사 어간 ‘짓’에 파생접사 ‘이’가 결합한 형식이다. 이때 ‘이’는 부사형성의 파생접사 ‘이’로도 볼 수 있고, 동사에 결합하여 명사를 형성하는 명사형성 파생접사 ‘이’로도 볼 수 있다. 전자와 같이 볼 경우에는 ‘지이지이’는 ‘이’에 의해 형성된 파생부사의 반복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분석방식이 더 합당한 듯이 보이는데, 첫째, 동사 어간 ‘짓’과 부사파생접사 ‘이’의 결합형인 ‘지이’가 16세기나 17세기의 다른 문헌들에서 문증되지 않고, 둘째, 동사 어간에 명사파생접사가 결합한 뒤에 다시 이의 반복형이 부사 어간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현대국어에서도 가능한 단어형성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의 ‘생김생김’, ‘차림차림’, ‘앉음앉음’이 그러한 예이다. 현대국어에서도 모든 명사가 반복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로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명사나, 분류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명사들이 반복형 구성에 참여한다.

라는 의사전달 매체의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중복형식을 유형별로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중 ‘명사 어간의 중복’, ‘굴절형의 중복’, ‘문장의 중복’은 이 글의 검토 대상 자료인 언간 255편 중에 한두 예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중복형식은 ‘부사 어간’, ‘-ㅎ-에 선행하는 어기’, ‘어기 활용형’에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절을 구분하여 이들의 출현 양상과 의미기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부사 어간의 중복

현대국어에서도 부사 어간의 중복은 흔하게 발견되는 언어현상이다. 부사 어간이 중복되어 ‘가득가득, 고루고루, 고이고이, 길이길이, 깊이깊이, 꼬박꼬박, 꼭꼭, 냉큼냉큼, 더러더러, 더욱더욱, 두루두루, 따로따로, 문득문득, 미리미리, 빨리빨리, 서로서로, 어서어서, 얼른얼른, 영영, 오래오래, 자꾸자꾸, 자주자주’ 등과 같은 중복형 부사 어간이 형성되고, 이들은 모두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⁵⁾ 부사 어간 ‘깊이’의 뜻은 “1. 곁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게, 2. 생각이 듬썩하고 신중하게, 3. 수준이 높게 또는 정도가 심하게”라고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깊이깊이’의 뜻은 “1. 곁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아주 멀게, 2. 생각이 아주 듬썩하고 신중하게, 3. 수준이 아주 높게 또는 정도가 아주 심하게”로 기술되어 있다.⁶⁾ ‘깊이’의 뜻풀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독형 부사 어간과 중복형 부사 어간 사이에 큰 의미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중복형이 됨으로써 단독형 부사 어간의 의미가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언간자료에서도 부사 어간의 중복은 특별한 의미론적 제약이나 형태론적 제약이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5) 이 외에도 부사 어간의 중복은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많이 나타난다. 의성어로서 부사 어간의 중복형으로는 “바삭바삭, 타닥타닥, 뽕뽕, 종알종알, 소곤소곤, 토닥토닥, 쿵당쿵당, 두런두런, 와글와글, 삐걱삐걱, 웅성웅성” 등이 있고 의태어로서 부사 어간의 중복형으로는 “발랑발랑, 어정어정, 껌벅껌벅, 모락모락, 짹짹, 끄적끔적, 넘실넘실” 등이 있다.

6)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 참조.

(5) 부사 어간의 중복

- 더욱더욱** 처창혀여 흐니 <송강언간(松江諺簡) 3>
- 썰리썰리** 서울로부터 사름 브리소 <송강언간 1>
- 몬내몬내** 든든 반기나 <인선왕후언간(仁宣王后諺簡) 61>
- 넘너 **ㄱ이ㄱ이** 업스와 헝 읍더니 <숙종언간(肅宗諺簡) 5>
- 두역(痘疫) **고이고이** 시기신 일 <창원 6>
- 고이고이** 즈식도 드리고 <순흥 19>
- 부딪부딪** 조심혀여 <창원 16>
- 부딪부딪** 회답이 하인 편 부치옵기 브라운 <창원 62>
- 브딪브딪** 조심혀여라 <창원 64>
- 즉시즉시** 아으오시긔 흐와스오니 <인선왕후언간 5>
- 천만천만** 몽미밭 <창원 33>
- 천만천만** 브라운 <창원 40>
- 만횡만횡** 깃브오며 <창원 34>

이들은 모두 부사 어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복형이 사용되었다. 현대국어에서는 반복형 부사는 ‘*약간약간, *전연전연’에서처럼 한자어 부사는 잘 반복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⁷⁾ 그러나 조선시대 언간에서는 부사 어간이 고유어이든(더욱더욱, 썰리썰리, 몬내몬내, ㄱ이ㄱ이, 고이고이, 부딪부딪) 한자어이든(즉시즉시, 천만천만, 만횡만횡) 중복형을 이루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듯하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단독형 부사 어간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중복형식이 사용되었다.

현대국어에서 부사 어간의 중복을 표현의 강화를 위해서 발생하는 수의적인 표면구조 현상으로 다루지 않고, 단어형성으로 취급해 사전에 등재한 이유는 중복형을 이룰 수 없는 부사 어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약간약간, *전연전연과 같은 한자어 부사 어간뿐 아니라, ‘하다’ 접미형 형용사의 부사형(*무수히무수히, *소중히소중히, *알뜰히알뜰히)은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언간에 나타나는 부사 어간의 중복을 다른 문장성분의 중복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강화를 위해서 쓰인 화용론적으로 동기화된 현상으로 다루어야 할지 단어형성으로 다루어야 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단지 조선시대 언간자료에도 ‘-하다’ 접미형 형용사의 부사형(무스히, 급급이,

7) 採珉, 『國語 語順의 研究 -反復 및 並列을 中心으로-』(國語學叢書 10)(國語學會, 1986), 60-61쪽 참조.

경경히)이 중복형을 구성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2. ‘-ㅎ-’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

언간에 나타나는 어기의 중복현상 중 그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ㅎ-’에 선행하는 어기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앞에서 설명한 부사 어간의 중복이 어간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면 ‘-ㅎ-’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현상은 어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6)

(가) [-동작성]

- 그런 **민망민망**흐 이리 어디 이시리 <인선왕후언간 21>
아마도 **민망민망**ㅎ기 꺾이 업서ㅎ노라 <인선왕후언간 61>
치위에 노인네 제관으로 든니시는 일 **민망민망**흐 일 일로논다 <창원 23>
돈으로 심너ㅎ시는 일 **민망민망**ㅎ것마는 <창원 23>
즈껏즈껏ㅎ여 ㅎ노라 <인선왕후언간 44>
머느리 **극진극진**ㅎ은가 시부오니 <창원 7>
무탈이 내려온 일 **괴특괴특**ㅎ읍고 <창원 7>
요스이는 쾌북ㅎ니 **괴특괴특**ㅎ나 <창원 23>
장부되온 날 깃부읍고 **괴특괴특**ㅎ오며 <창원 40>
아기년 돌 지나시오니 **괴특괴특**ㅎ오나 <창원 63>
형님 빗지신 일 츄마 **불안불안**ㅎ읍 <창원 8>
근근 축식의 **망극망극**ㅎ은 심식 <창원 14>
돈은 한 푼 변동할 수 업고 더욱 **망극망극**ㅎ읍 <창원 54>
동서도 극진ㅎ오니 **다힘다힘**ㅎ오며 <창원 22>
별고는 업시오니 **다힘다힘**ㅎ오이다 <창원 27>
족하야기 잘 크는 일 **신통신통**ㅎ다 <창원23>
식식의 **무안무안**ㅎ오이 <창원 15>
신행은 아내 썩는 ㅎ실느는지 **궁금궁금**ㅎ오이다 <창원 20>
안흔 **즈심즈심**ㅎ니⁸⁾ 괴롭다 <창원 21>
완오 형데 **무탈무탈**ㅎ은지 <창원 22>
완오 형데 **무탈무탈**ㅎ오니잇가 <창원 34>
아즈바닌 너외분 오죽 **경험경험**ㅎ오시리잇가⁹⁾ <창원 27>

8) 즘심(滋甚)ㅎ-: 더욱 심하다, 점점 더 심해지다.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참조.

모속 심각 **간절간절호오이다** <창원 27>
 두야 복염 **근절근절호오이다** <창원 34>
 두루 복모 **근절근절호오며** <창원 63>
 차마 굶굶 보고시븐 심각 **근절근절호오며** <창원 63>
 닉내 테후 **만안만안호옵신**¹⁰⁾ <창원 34>
 어른 상식라고 **망칙망칙호옵고**¹¹⁾ <창원 54>
 차마 보기 닷감고 **불상불상호옵** <창원 54>
 단불의 날녀시오니 **불상불상호니** <창원 56>
 닉닉 괴운 **튀뵁튀뵁호오시기** 바라옵느이다 <창원 56>
통박통박한¹²⁾ 말도 진즉 전치 못 <순흥 19>
 여의 마음의도 지금껏 **절충절충호오니**¹³⁾ <창원 36>

(나) [+동작성]

이 더근 열 혼 나를 ㄹ장ㄹ장 **조심조심하라** <달성 58>
 즈식의 올흔 이리니 **조심조심호여** 겨쇼 <달성 16>
 나리 하 험호니 더욱 **분별분별호옵노이다**¹⁴⁾ <송강자당안씨언간(松江慈堂安氏 諺簡) 1>
 이런 전츠로 工夫를 엇디 못호여 拜望을 關호니 **得罪得罪호여라** <박통하: 65b>
 차가 **공싱공싱신니**¹⁵⁾ <창원 6>
 아모조록 **극녁극녁하여**¹⁶⁾ 주시기 천만 바라옵느이다 <창원 44>
 천형 **축슈축슈호옵고** <창원 49>
용여용여할¹⁷⁾ 물이 <순흥 19>
 손아눔 남미 다려다 노오이 범든 익즈롭 **심여심여나**¹⁸⁾ <순흥 19>
 성복과 너러벌 제식와 **망조망조호셔**¹⁹⁾ 지너오니 <창원 54>

9) 경형(慶幸)호-: 경사스럽고 다행하다. 위의 책 참조.
 10) 만안(萬安)호-: 신상이 아주 평안하다. 위의 책 참조.
 11) 망칙(罔測)호-: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그러져 어이가 없거나 차마 보기가 어렵다. 위의 책 참조.
 12) 통박(痛迫)하-: 마음이 몹시 절박하다. 위의 책 참조.
 13) 절충(切充)호-: 절박함이 가득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앞의 책 참조.
 14) 분별호-: '연려하다(念慮-)(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의 옛 말. 국립국어연구원 편, 앞의 책 참조.
 15) 공싱(共生)호-: 공생하다, 함께 살고 있다.
 16) 극녁(極力)하-: 있는 힘을 아끼지 않고 다하다. 국립국어연구원 편, 앞의 책 참조.
 17) 용여(用慮)하-: 마음 쓰다, 걱정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앞의 책 참조.
 18) 심여(心慮)호-: 마음속으로 걱정하다.
 19) 망조(罔措)호-: 망지소조하다(너무 당황하거나 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 하다). 국립국어연구원 편, 앞의 책 참조.

예문 (6)(가)는 ‘-ㅎ-’에 선행한 [-동작성] 어기가 중복된 경우이고 (6)(나)는 ‘-ㅎ-’에 선행한 [+동작성] 어기가 중복된 경우이다. ‘-ㅎ-’에 선행하는 서술성 어기는 별다른 형태론적 제약 없이 어기 중복현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작성] 서술성 어기나 [-동작성] 서술성 어기 모두 중복현상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현상에 참여하는 어기가 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 하는 제약도 보이지 않는다. 한자어 어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고유어 어기도 ‘즈것즈것, 불상불상’처럼 중복현상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ㅎ-’에 선행한 [-동작성] 어기가 월등히 높은 빈도로 중복현상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적이긴 하지만 [+동작성] 어기도 중복형식 구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중복형식에 참여하는 ‘-ㅎ-’에 선행하는 어기는 [+동작성]이든 [-동작성]이든 모두 주관적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문 (6)을 보면 ‘우려나 걱정’의 의미를 갖는 어기로 “민망·불안·무안·조심·망칙·불상·통박·절충·조심·분별·득죄·용여·심여·궁금·득죄”가 중복형식에 참여하고 있고, ‘다행이나 감사’의 의미로 “기특·망극·다행·신통·경희·만안·티평·무탈·축슈·공싱”이, 그리고 ‘당황이나 고생’의 의미로 “극너·망조·즈것·극진·간절” 등의 어기가 중복형식에 참여하고 있다. 모두 ‘-ㅎ-’에 선행하는 어기의 심리적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중복형식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ㅎ-’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현상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사 어간이나 굴절형, 문장의 중복형과 동계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위에서 살펴본 중복형식이 새로운 단어형성이 아닌 것처럼 ‘-ㅎ-’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형식 역시 새로운 단어형성이 아니다. 어기 중복현상은 인간자료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부사 어간이나 명사 어간 또는 굴절형의 중복처럼 “표현의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수의적인 표면구조 현상인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타의 중복현상이 어간 전체나 굴절형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던 반면에 ‘-ㅎ-’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은 ‘-ㅎ-’를 제외한 어기만 중복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예문 (6)의 예들의 구성을 $[X+(-ㅎ-)] \# X+(-ㅎ-)$ 와 같이 선행하는 ‘-ㅎ-’가 생략된 구성으로 볼 수도 있고, $[X \# X+(-ㅎ-)]$ 와 같이 선행하는 ‘-ㅎ-’를 애시당초 상정할 필요가 없는 구성으로 볼 수도 있다.

‘-ㅎ-’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은 재점으로 표기된다. 만약 예문 (6)의 예들의 구성을 $[X+(-ㅎ)] \# X+(-ㅎ-)$ 와 같이 선행하는 X에 결합된 ‘-ㅎ-’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화자는 ‘X+(-ㅎ-’형을 상정한 뒤에 다시 이를 생략하는 과정을 재점으로 표기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요한 것은 어기 X와 X의 결합은 화용론적으로 동기화된 구성이지 단어형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배영환(2011)에서처럼 “민망민망하다”의 경우 직접구성요소로 “민망민망”과 ‘-ㅎ-’를 분석해낼 필요가 없다.

여타의 중복현상이 어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유독 접사 ‘-ㅎ-’에 의해 형성된 어간들은 왜 ‘-ㅎ-’에 선행하는 어기만 중복되는 특징을 갖는 것일까? 이는 다른 파생접사와 구별되는 이 시기의 파생접사로서의 ‘-ㅎ-’의 형식적 기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파생접사 ‘-ㅎ-’는 통사적으로 서술기능을 완결시켜주는 기능만 담당하였기 때문에 현대국어보다 비어휘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였다.²⁰⁾ 따라서 ‘-ㅎ-’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들의 서술성 의미는 오로지 어기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어기 중복현상에도 ‘-ㅎ-’를 제외한 어기만 참여하게 된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주관적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용언과 가장 잘 공기하면서 강조를 위해 사용되는 정도성 부사로는 “매우, 너무, 아주, 몹시, 되게, 대단히, 상당히, 엄청” 등이 있다. 예문 (6)에 제시된 중복형식은 현대국어에서라면 강조의 정도성 부사가 수식하는 구문으로의 대체가 가장 자연스럽다.

3. 어기활용형의 중복

유독 ‘-ㅎ-’를 접사로 취하는 단어들 중에는 어간의 일부가 된 ‘-ㅎ-’와 그에 뒤따르는 어미들이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ㅎ-’가 결합하

20) 복합어이든 파생어이든 일단 하나의 어간이 형성되면 통사구조 속에서 하나의 단언어로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통사적 과정이 단언어 내부에 작용할 수 없는 것처럼 파생어나 복합어도 이러한 현상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나 유독 서술성어기에 ‘-ㅎ-’가 결합하여 형성된 동사 어간이나 형용사 어간은 ‘-ㅎ-’와 그에 뒤따르는 어미가 생략된 다든가, ‘-ㅎ-’에 선행하는 어기가 중복되어 나타난다든가, 서술성어기와 ‘-ㅎ-’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현주, 「17세기 언간의 ‘-ㅎ-’ 구성에 관한 형태론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5), 142-161쪽 참조.

여 형성된 동사 어간이나 형용사 어간이 ‘-ㅎ-’와 그에 뒤따르는 어미가 생략되는 현상을 ‘어기활용형’이라고 한다.²¹⁾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언간에는 이 어기활용형이 다수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형식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광범위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어기활용형의 중복현상은 어기의 성격이 [-동작성인가 [+동작성인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환경에 차이를 보인다. 먼저 예문 (7)은 [-동작성] 어기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7)

(가) 그런 **참혹참혹** 짝흔 일이 어디 이시리 <인선왕후언간 43>

두 분 노치너 테후 당늬첼흐옵시니 **민망민망** 송구절박하다 <창원 23>

순산 칭즈하오신 문안 듯사오니 **신괴신괴** 신통신통 혼안 경축흐옵 <창원 27>

여식이 **미커미거**²²⁾ 유츄흐와 사든게 온 걱정을 맞기오니 <창원 40>

부병인 듯 십퍼 더욱 **지원지원**²³⁾ 고고 속처의 망극지통 오미의 매치옵 <창원 54>

인편의 즐 있는 소식 듯시오니 **괴특괴특** 다행흐오이다 <창원 62>

완이 형데 **무탈무탈** 축실흐오니잇가 <창원 63>

(나) 혼슈법절도 성앙을 못흐오니 **분탄분탄**²⁴⁾ 낫 둘 곳시 읍늬이다 <창원 40>

천지 합벽흐옵는 화고를 당흐니 **망극망극** 유한지통 비홀 썩 엷다 <창원 54>

득남 **신통신통**²⁵⁾ 깃부옵기 측냥 못흐셔십 <창원 58>

(다) **티평티평** 지늬기 축슈 브란다 <창원 21>

예문 (7)(가)는 ‘-ㅎ고’의 생략을, (7)(나)는 ‘-ㅎ여’의 생략을, (7)(다)는 ‘-ㅎ게’의 생략을 상징할 수 있는 경우들이다. 비록 ‘-ㅎ-’와 후행하는 접속어미가 생략되긴 했지만, 각각 등위접속절과 종속접속절을 구성하고 있다.

21) ‘어기활용’이라는 용어는 김창섭(1997)에서 가져온 것이다. 김창섭(1997)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기활용형’이라고 지칭한 뒤, 이러한 생략현상은 동사 어간이든 형용사 어간이든 상관없이 ‘-하-’가 접사로 쓰일 때만 가능한 현상이라고 보았다. ‘-하-’의 생략은 일차적으로는 ‘X’가 ‘X하다’의 어휘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고 ‘하-’는 의미적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으며, 어기와 ‘하-’ 사이라는 경계의 어떤 성격이 이러한 과감한 생략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22) 미거(未舉)ㅎ-: 철이 없고 사리에 어둡다. 국립국어연구원 편, 앞의 책 참조.

23) 지원(至冤)ㅎ-: 지원극통하-(지극히 원통하-). 위의 책 참조.

24) 분탄(憤歎-/憤嘆)ㅎ-: 분개하다(몹시 분하게 여기다). 위의 책 참조.

25) ‘신통’의 오기.

반면에 예문 (8)을 보면 [+동작성] 어기들의 어기활용형 중복현상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 (8) 우리 남미 한번 만나보고 죽을가 탄식탄식 <순흥 19>
 오남미 공싱공싱²⁶⁾ <순흥 19>
 지하에 가서 십 모여 만나 속죄할가 통곡통곡 <순흥 19>
 죠흔 쇼식이나 고딕하오나 엇들지 스렴스렴²⁷⁾ <순흥 22>

예문 (8)에서 [+동작성] 어기들의 중복형은 주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ㅎ-’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형식을 [X # X+-ㅎ] 구성 또는 [X+(-ㅎ-) # X+-ㅎ]으로 보았다면 예문 (7)(8)의 어기활용형의 중복형식은 [X # X] 또는 [X+(-ㅎ-) # X+(-ㅎ-)]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

[-동작성]이든 [+동작성]이든 나타나는 환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ㅎ-’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처럼 모두 주관적 심리 변화를 나타내는 용언이라는 의미상의 공통점이 있다. ‘우려나 걱정’의 의미로 “참혹·민망·미거·지원·분탄·망극·탄식·통곡·스렴” 등이 쓰였고, ‘다행이나 감사’의 의미로 “신기·신통·괴특·무탈·티평·공싱” 등이 쓰였다. 모두 주관적 심리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중복형식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어기활용형의 중복형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중복형식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어형성 방식이 아니라, 어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수의적인 표면구조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구성도 앞에서 살펴본 ‘-ㅎ-’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처럼 강조의 정도성부사 “매우, 너무, 아주, 몹시, 되게, 대단히, 상당히, 엄청” 등과의 대체가 가장 자연스럽다. 현대국어에서라면 [강조의 정도성부사 # X+-ㅎ-] 구성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IV. 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의 성격

여타의 다른 문헌자료들과는 달리 언간에 왜 유독 이러한 중복형식이

26) 공싱(共生)ㅎ-: 같이 잘 지내다.

27) 스렴(思念)ㅎ-: 생각하다.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라는 의사전달 매체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간이라는 의사전달 매체가 가지는 중요한 성격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명확히 정해진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쓰여진다. 여타의 한글문헌들이 불특정 다수가 읽을 것을 전제하고 쓰인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 대부분의 인간은 개인 간의 비공식적인 사적인 문서행위이다.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나 불특정 다수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문헌들과는 서술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인간에 기술된 내용은 복잡한 사건이나 사상의 기술이 아니라 다분히 일상적인 안부가 주를 이루고, 포함된 내용 또한 주관적인 감정 표현이 주를 이룬다.²⁸⁾

셋째, 제한된 지면과 제한된 시간 안에서 기술을 완료해야 하는 의사전달 수단이다. 현대의 트위터와 같은 SNS처럼 엄격히 글자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보통 한 장의 종이라는 제한된 지면을 이용해서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다시 그에 대한 답장을 받아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속하게 기술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인간이 가지는 이러한 세 가지 의사전달 매체의 특징은 그것에 수록된 언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막연히 여타의 한글 언해서와 달리 그 시대의 구어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어왔는데, 이러한 기대를 하게 만든 인간의 구어적 성격은 위에서 말한 인간의 매체적 특징 중 첫 번째, 두 번째와 관련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어적인 특성은 특정 발신자가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화체의 문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²⁹⁾ 인간은 특정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적 표현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28) 황문환(2010)에서는 인간자료의 특성을 ‘일상성, 자연성, 구어체 문어, 개인성, 사실성’ 등으로 보고 이 중 ‘일상성’을 바탕으로 인간을 어휘의 보고라고 보았다.

29) 인간의 문어성과 구어성에 대한 연구는 김주필, 「조선시대 한글 편지의 문어성과 구어성」, 『한국학논총』 35권 0호(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참조. 김주필(2011)에서는 “감각(매체), 발신자-수신자의 상호 작용, 발신자-수신자의 분명성, 공간 공유성, 시간 공유성, 내용의 전개, 지시 대상, 보조적 활용 수단”이라는 항목을 통해 조선시대 한글 간찰의 문어성과 구어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언어수행을 전제로 하여 쓰인 문서 양식이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경어법이 등장한다. 발신자가 수신자를 배려하는 상대경어법 어미들과 겸양법 선어말어미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발신자가 수신자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어가 등장하는 것 역시 특정 수신자를 염두에 둔 문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어적 요소이다.

언간의 두 번째 매체적 특징 또한 인간의 구어성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언간의 내용은 일상적인 사건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표현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성격은 인간의 출현 어휘에 영향을 미친다. 언간에는 판본자료에서 볼 수 없는 구어적 성격을 가진 일상어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출현 어휘는 복잡한 사건이나 사상의 기술을 다루는 판본자료만큼 다양하지 못하고 상당히 제한적이다.³⁰⁾ 언간 내용의 특성상 일상성을 가진 특정 어휘가 극도의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편중현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간의 세 번째 매체적 특징도 인간의 언어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통 언간은 한 장의 종이라는 제한된 지면에 신속하게 최대한의 정보를 수록해야 한다. 발신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단, 발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공유하고 있는 정보는 과감히 생략한다. 그리고 선행하는 언어형식이 무엇이든 그것을 다시 쓰지 않고 '재점'이라는 반복부호로 표기한다. 재점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지면에서 운필(運筆)의 노력을 덜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표기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고찰하고 있는 '중복형식'은 인간의 매체적 특징 중 두 번째, 세 번째와 관련해서 발달한 표현양식이다. 먼저 언간에 중복형식이 기형적으로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인간의 매체적 특징 두 번째와 관련된다. 언간은 일상성을 다루는 안부 인사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적 심리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발신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는 '우려나 걱정', '다행이나 감사', '당황이나 고생'의 의미를 갖는 심리용언들로 표현된다. 이러한 심리용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어에서라면 강조의 정도성부사 '매우, 너무, 아주' 등이 쓰여야 하는데, 언간에서는 그 기능을 중복형식이

30) 배영환(2011)에서는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의 표제어 분포 양상을 분석하여 표제어별 빈도수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기술하였다.

담당하고 있다.

주관적 심리용언의 강조 기능을 정도성부사가 아닌 중복형식이 담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인간의 세 번째 매체적 특징과 관련된다. 제한된 지면과 시간 상황에서 가장 경제적인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는 '재점'의 장점으로 인해 인간에는 이를 이용한 독특한 언어형식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복형식이다. 앞 장에서 우리는 중복형식에 주로 주관적 심리용언의 어기가 참여함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인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중복형식의 기능은 정도성부사를 대체하고 있는 '강조'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인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심리용언의 어기는 중복형식의 구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고, 이 중복형식 '어기+어기'의 의미는 '강조의 정도성부사+어기'로 쉽게 대체할 수 있었다.

정도성부사는 문어에서보다 구어에서 훨씬 더 활발히 사용되는 문장성분이다. 정도성부사는 상황 의존성이나 의미 유연성이 커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기준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 현대국어 구어에서도 강조의 정도성부사(매우, 되게, 너무 등)가 주관적 심리용언과 공기하는 현상이 쉽게 관찰된다.³¹⁾ 인간은 위에서 말한 두 번째 매체적 특성에 의해서 그 내용에 구어적 표현이 많이 들어 있다. 구어 상황에서라면 주관적 심리의 강조 표현은 정도성부사가 담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인간에서는 주관적 심리의 강조 표현에 중복형식이 사용된 것을 앞 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중복형식의 빈번한 출현은 인간의 구어적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인간이라는 매체적 특징에 의해 특별히 발달한 언어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어에서라면 정도성부사로 표현되어야 하는 상황이 인간에서는 중복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복형식의 표기 수단인 '재점'은 강조의 정도성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면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기의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중복형식의 대부분은 그 당시의 실제 언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구어 상황에서라면 강조의 정도성부사를 써야 할 상황에서 중복형식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31) 김혜영·강범모, 「구어 속 강조적 정도부사의 사용과 의미」, 『한국어학』 제48호(한국어학회, 2010) 참조.

V. 맺음말

17세기 이후 근대국어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글 간찰 255편에 나타나는 어기 중복현상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의 용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언간에 유독 중복형식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언간에 나타나는 중복현상의 대부분은 언어수행 면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수의적인 언어현상이었다. 중복형식의 대부분은 '표현의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의적인 표면구조 현상으로서 화용론적으로 동기화된 것이었다. 따라서 특별한 제약 없이 '부사 어간의 중복', '명사 어간의 중복', '-흐-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 '어기활용형의 중복', '굴절형의 중복', '문장의 중복' 등 다양한 통사 단위에서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중복형식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부사 어간의 중복', '-흐-에 선행하는 어기의 중복', '어기활용형의 중복'을 통해 그 출현 양상과 의미기능을 살펴보았는데, '우려나 걱정', '다행이나 감사', '당황이나 고생'과 같은 화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강조하는 데 중복형식이 참여함을 알 수 있었다. 중복형식은 새로운 단어형성 방식이 아니라, 어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수의적인 표면구조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타의 중복현상이 어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유독 접사 '-흐-'에 의해 형성된 어간들은 '-흐-'에 선행하는 어기만 중복하였는데 이는 다른 접사와 구별되는 이 시기의 파생접사로서의 '-흐-'의 형식적 기능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여타의 다른 문헌자료들과 달리 언간에 유독 중복형식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된 이유를 언간이라는 의사전달 매체의 특징에서 찾았다. 언간은 일상성을 다루는 안부 인사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적 심리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심리용언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구어 상황에서라면 강조의 정도성부사 '매우, 너무, 아주' 등이 쓰여야 하는데, 언간에서는 그 기능을 중복형식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언간에서 심리용언의 강조 기능을 정도성부사가 아닌 중복형식이 담당하는 이유는 가장 경제적인 기술방식을 추구하는 언간의

매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제한된 지면과 시간 상황에서 가장 경제적인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는 '재접'의 장점으로 인해 인간에는 이를 이용한 독특한 언어형식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복형식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김미형,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제15호, 한말연구학회, 2004.
- 김일근, 『언간의 연구(삼정판)』. 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 김일근·황문환, 「金魯敬(秋史 父親)이 아내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1791년)」. 『문헌과 해석』 5, 문헌과해석사, 1998.
- 김주필, 「조선시대 한글 편지의 문어성과 구어성」. 『한국학논총』 제35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223-257쪽.
- 김창섭, 「形容詞 派生 接尾辭들의 機能과 意味: ‘-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震檀學報』 58, 1984.
- _____,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國語學叢書』 21, 太學社, 1996.
- _____,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 22, 1997.
- 김혜영·강범모, 「구어 속 강조적 정도부사의 사용과 의미」. 『한국어학』 제48호, 한국어학회, 2010, 101-129쪽.
- 배영환, 「조선시대 인간의 어휘 성격과 특수 어휘에 대한 고찰 -용언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1권 0호, 한국어학회, 2011, 57-92쪽.
- 백두현, 『현풍과씨언간 주해』. 태학사, 2003.
- 宋喆儀,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국어학 총서』 18, 태학사, 1992.
- 양명희, 「현대국어 동사 ‘하-’의 의미와 기능」. 『국어연구』 96호, 1990.
- _____, 「국어의 생략현상」. 『국어국문학』 117, 1996.
- 이건식, 「한국 古代·中世 文書와 中國 敦煌 文書의 標點 符號 비교 연구」. 『2010년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 이종덕, 「인간을 중심으로 본 필사 격식과 표지에 대하여」. 『秋史한글편지세미나 논문집』,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2004.
- 이현주, 「17세기 인간의 ‘하-’ 구성에 관한 형태론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태학사, 1998.
- 採琬, 『國語 語順의 研究 -反復 및 並列을 中心으로-』(國語學叢書 10). 國語學會, 1986.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2』. 태학사, 2005.
- 황문환, 「16, 17세기 인간의 상대경어법」. 『국어학총서』 35, 태학사. 2002a.
- _____, 「조선시대 언간과 국어생활」.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연구원, 2002b, 133-145쪽.
- _____,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연구 현황과 전망」. 『어문연구』 122, 한국어문교육

- 연구회, 2004, 69-94쪽.
- _____, 「조선시대 인간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2010, 73-131쪽.
- _____, 「〈順天金氏墓 出土 諺簡〉의 反復 符號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발표문, 2011.
- _____, 「조선시대 인간자료의 종합화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 제59호, 한국어학회, 2013, 39-74쪽.
- 한글학회, “부록2 부호”,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52, 61-68쪽.

국 문 요 약

이 글은 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왜 유독 인간에 이러한 중복형식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작성되었다.

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의 대부분은 언어수행 면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수의적인 언어현상이었다. 중복형식의 대부분은 '표현의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의적인 표면구조 현상으로서 화용론적으로 동기화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구성에 특별한 제약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강조하는 데 중복형식이 참여함을 알 수 있었다.

여타의 다른 문헌자료들과는 달리 인간에 유독 이러한 중복형식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된 이유는 인간이라는 의사전달 매체의 특징 때문이었다. 인간은 일상성을 다루는 안부 인사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적 심리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심리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구어 상황에서라면 강조의 정도성부사 '매우, 너무, 아주' 등이 쓰여야 하는데, 인간에서는 그 기능을 중복형식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서 이러한 심리용언의 강조 기능을 중복형식이 담당하는 이유는 가장 경제적인 기술방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매체적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제한된 지면과 시간 상황에서 가장 경제적인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는 '재점'의 장점으로 인해 인간에는 이를 이용한 독특한 언어형식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복형식인 것이다.

투고일 2014. 6. 20.

심사일 2014. 7. 25.

게재 확정일 2014. 8. 28.

주제어(keyword) 인간(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중복형식(duplicating forms), 재점(duplicating marks), 정도성부사(degree adverbs)

On the Duplicating Forms of 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Lee, Hyun-ju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uplicating forms of 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and explain why it appears with frequency.

Most of duplicating forms of 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are language phenomena which are occurred to voluntary language performance for a particular intention. It aims to strengthen expression at the pragmatic aspects. Therefore it is not regulated by rules. It aims to express the subjective mental state of speaker.

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are special transmission media which reflects the everyday life. Therefore it expresses the subjective psychology. In the case of expression in spoken language, it is expressed in degree adverbs. Degree adverbs are highly influenced by their surrounding contexts, since their primary role is to show speaker's emotion and attitude in a more efficient manner.

In the 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the duplicating forms replaced the role of the degree adverbs. Generally the duplicating forms are described in duplicating marks. Duplicating marks are very efficient at economizing the space. Thereby in 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the duplicating forms appear with extraordinary frequency.